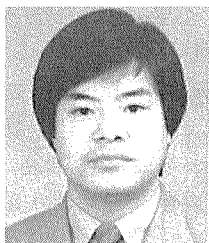


기생충 퇴치에 전력하고 있는 전통 문명의 나라 자유중국

-대만 기생충 방치회 방문 및 시찰을 마치고



한 남 석

중화민국기생충방치회 방문 및 시찰단으로 서병설회장님 이관영사무총장님을 위시해 성정용총무부장님, 사무국장님으론 한상진, 함준호, 이홍량, 이순, 과장급으론 마희연본부홍보과장님과 나를 포함 9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8월 24일, 공항에서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10시 40분 발 대만행 캐세이(CPA)항공기에 오르기 위해 탑승구를 지나 항공기에 탑승했다.

항공기의 여승무원들은 한국, 중국, 일본인으로 대부분 아시아계였다.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힘차게 이륙을 했으며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기 시작했다.

외국길이 초행이라 그런지 조금은 긴장이 되었다. 잠시후, 슈트어디스가 식단차림표를 내밀었다. 기내식은 비후스테이크였으며 포도주 주스, 커피 등이 따라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입국신고서를 나누어 주었다. 입국신고서에는 인적사항과 여행목적 등을 적게끔 되어 있었다.

기재사항의 칸을 전부 메꾸어 갈 즈음 우리말로 잠시후면 대만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있는 후 푸른전원을 창밖으로 내려보는 순간 비행기는 착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중국식 건축의 공항빌딩을 옆으로 해서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다. 도착한 시간은 11시 30분(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30분)이었고 서울에서 대만까지의 비행시간은 1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멀게만 생각되었던 국제공항은 중앙의 터미널빌딩과 남북 두개의 탑승 및 하강용 홀로 되어 있어 출입국하는 관광객의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었다.

안내표지판에 입국을 입경이라고 표시한 것이 좀 특이 했다.

우리일행은 입국터미널을 통해 검역, 여권, 세관의 순으로 입국절차를 거친후 공항대합실로 나왔다. 대합실에는 중화민국 기

생충방치회 간부 및 관계직원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 해 주었다.

날씨는 후덥지근한 한여름날씨였으며, 2층버스를 이용 대북시로 향했다. 자동차안은 냉방이 잘되어 있었다.

공항로의 환경과 협죽도꽃이 피어있는 모습하며 기후조건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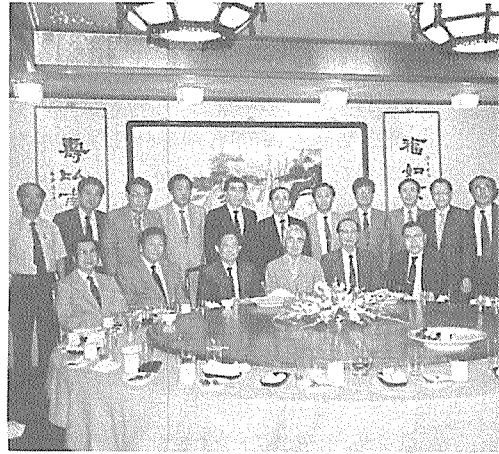
대북시로 가는 중에도 비가 조금씩 내렸다. 대만에는 비가 오는 것을 제일 좋아 하는 때문인지 우리 일행을 반기는 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동차는 대북시내에 있는 호텔앞에 멈췄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좀 재미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반점하면 식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만에서는 호텔을 대반점이라고 했다.

공식스케줄대로 중화민국기생충방치회를 방문 방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측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검사수수료는 1인당 22元(한화 약 570원)으로 우리 검사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구충약품은 Mebendazole 10mg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위생처와 교육청이고 투약은 위생국(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방치회 방문을 마치고 대북의 중심에서 북으로 약 8km거리에 있는 국립고궁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은 주위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국 궁전식 4층건물로, 호화스럽고 웅장하고 건물앞에서 본 경치도 훌륭했다. 박물관 안에는 중국 5,000년의 역대왕조에서 전해 내려 온다는 희세의 예술품 및 중요한 문물 62만점의 국보급



예술품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들은 3개월마다 8천점씩 바꾸어 전시 한다고 한다.

중화민국이 세계에 자랑한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다. 신기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품, 칠보, 도자기, 상아조각품, 청동, 동자상고화, 향수병, 서예책 등 그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 문화 예술작품들은 전쟁중에 위험을 무릎쓰고 가지고 온 것들이라고 하니, 고유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국민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은 대만성정부위원 胡惠德초청 만찬으로 대만고유음식의 맛을 보았다.

만찬이 끝나고 우리 일행은 야시장을 둘러 보았다. 야시장에는 코브라뱀을 놓고 지나가는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며 장사하는 집이 많았고 각종기념품 등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열대과일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었다.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이국에서의 하룻밤을 보냈다.

우리 일행은 예정대로 주중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중화민국 대만성 위생서(우리나라의보건사회부)를 방문, 위생서 사업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위생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보았다. 위생서 방문을 마치고 위생서 바로 앞에 위치한 중정기념당으로 향했다. 1975년 4월 5일에 서거한 중화민국의 지도자 장중정 총통의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 4월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총 면적 78,500평의 광대한 광장에 중정기념당과 아치형으로 된 정문, 중정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층은 전시실로 장총통의 일생을 그린 사진, 자료, 훈장, 기념품 및 문헌 등이 전시되고 있었으며, 2층은 정청으로 높이 6.3m의 거대한 총통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위생서장 만찬을 끝내고 신복투로 이동해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은 온천지로 유명했으며 온천 질은 마치 비온뒤의 흙탕물과 같아 온천탕안에서 약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아 탕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였다.

8월 26일 죽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9시 20분 호텔을 출발 고속도로를 이용 대북시와 반대편 끝에 위치한 고웅시를 향해 자동차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대만의 농촌은 한가롭고 질서가 있게 보였고, 사탕수수밭과 악어, 뱀 양식장이 띄엄 띄엄 눈에 들어왔다. 여행의 피곤함 때문인지, 차안에서 한잠을 자고 깨어나보니 화창한 날씨가 변하여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것 같이 하늘은 먹구름으로 짙어있었다. 조금 후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5m 전방시야가 가릴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졌다. 일부차량들은 도로 우측에 만들어 놓은 비상도로에 정지 하

였다.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가 탄 자동차는 계속 달렸다. 고웅시에 거의 인접해서야 비가 멈췄다. 5시간여 달린후 고웅시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는 바로 고웅의학원으로 향했다.

의학원장 및 직원들이 우리 일행을 반기기 맞이해 주었으며 의학원사업현황에 대한 비디오 관람과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또한 식사후에는 반드시 과일이 나왔다. 이곳 고웅시는 인구가 약 130만명으로 대북 다음가는 대만 제2의 도시로 남부대만의 중심도시이자 공업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 생활은 대북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으며 여유있는 도시공간으로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었다.

후덜덜근한 날씨와 하루종일 차에 시달렸던 탓으로 호텔에 돌아와서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은 대만고유의 토속음식으로 노상테이블에서 빵과 두유로 간단히 아침식을 했다.

고웅의학원 교수의 안내로 기생충질환인 마라리아 최초 발견 지역으로 가서 주위 환경과 당시 마라리아를 발견했던 영국인 의사가 살았던 집을 둘러보았다.

주변은 정리가 되었으나 의사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집집마다 불상을 모셔놓고 골목마다 불상앞에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운동네가 향냄새로 가득했고 불상을 크게 모셔 놓은 곳은 장식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우리 일행은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불광산으로 향했다. 날씨는 무척 더웠다. 이곳에는 거대한 땅굴속에 수백개의 부처

상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으며 실내에도 각종 부처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다시 등청호를 들렀다. 고흥시 동쪽 약 6Km지점에 있는 인공호수로 일찌기 공업용수 수원지로 사용하다가 개조공사를 통해 지금의 인공호수로 만들었는데 남부대만에 있어 대표적인 명소로 변했다고 한다.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공원은 중국식 탑과 건물이 원내에 산재해 있어 번잡스런 고흥시내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는 가장 좋은 곳이었다. 인공호수 위에는 교각이 구곡으로 이루어져 지그재그로 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환영아치, 궁전식의 수족관 등이 있고, 주변에는 아름다움 언뜻과 호반에 느러진 수양버들이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8. 28 오전에는 고흥시 위생국을 방문, 사업현황 및 업무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내부시설을 돌아봤다. 마약과 성병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성인병 예방사업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원주민회관 일일담을 방문하였다. 이곳에는 원주민들이 생활했던 도구 및 생활용품, 배 등이 그대로 보존, 전시되고 있었으며, 돌로 깎아 만든 탁자와 나무조각을 한 위자 등이 별로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고풍적인 멋을 부린 흔적이 많았다.

이어 우리는 대중시를 향해 달렸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9족 문화촌에는 9종족이 있고 이들은 중국대륙의 많은 중국인이 이주해 오기 전에 대만 각지에 살고 있던 선주민족으로 현재 이사람들의 인구는 약 30만명 정도라고 하며 그 반수는 평지에서漢민족과 융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수는 아직도 산간부에서 농경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산지 원주민들은 다이얄족, 아미족, 쓰오족, 부논, 바이만, 사이하, 루카이, 비난, 아미족 등 9종족으로 구분되고, 각 종족 모두 특유의 풍습,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노래와 춤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저녁에는 대중시 위생국장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이 끝나고 바로 고속도로를 따라 대북시로 달려 밤 11시 30분에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자유시간으로 국립쇼핑센터를 둘러 보았다. 이곳에는 중국 전통의 색채가 다양한 수공예품과 민예품, 가구류, 도자기제품, 실내장식용 기복, 기석, 대리석제품, 산호가공품, 고산족악세사리, 칠보, 부채 등 다양한 전통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건강조성 기금회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하여 기금회의 역할과 의의 등을 들었다.

내일이면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는 기분에 한 곳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 야시장에 가서 야경구경과 간단한 선물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온 일행들은 다음날 귀국준비를 한다고 몹시 분주했다.

떠날채비를 하다보니 새벽 2시가 되었다. 그때서야 잠을 청했다.

아침일찍 깨었다. 간단하게 아침을 마치고 11시 50분에 공항에 도착 수속을 마치고 2시 50분 항공기편에 몸을 실었다. 기역에 남은 출장 이었다.

(필자=건협 제주지부 서무과장)